

화폭에 서정詩를 그리는 남자

문성식 두 번째 개인전 '풍경의 초상'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밤이 되었다. 무더운 여름, 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종일 문상객을 치른 할아버지는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몸을 기댔다. 소쩍새가 울었다. 서울서 그림 그리는 손자는 자신이 본 장면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겼다. 그는 그로부터 3년 후인 2007년, 그날의 광경을 연필로 세세하게 화폭에 담았다. 제목은 '별과 소쩍새 그리고 내 할머니'.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 최연소 참여 작가로 주목받았던 문성식(31)이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두 번째 개인전 '풍경의 초상'을 열고 있다. 연필 드로잉과 아크릴화 등 모두 69점. 작가의 개인적 체험을 서정적으로 표출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문성식은 "내가 화면에 저장하고 싶은 것은 '내면'이다. 관념화된 경험이 사실의 재현보다 더 리얼리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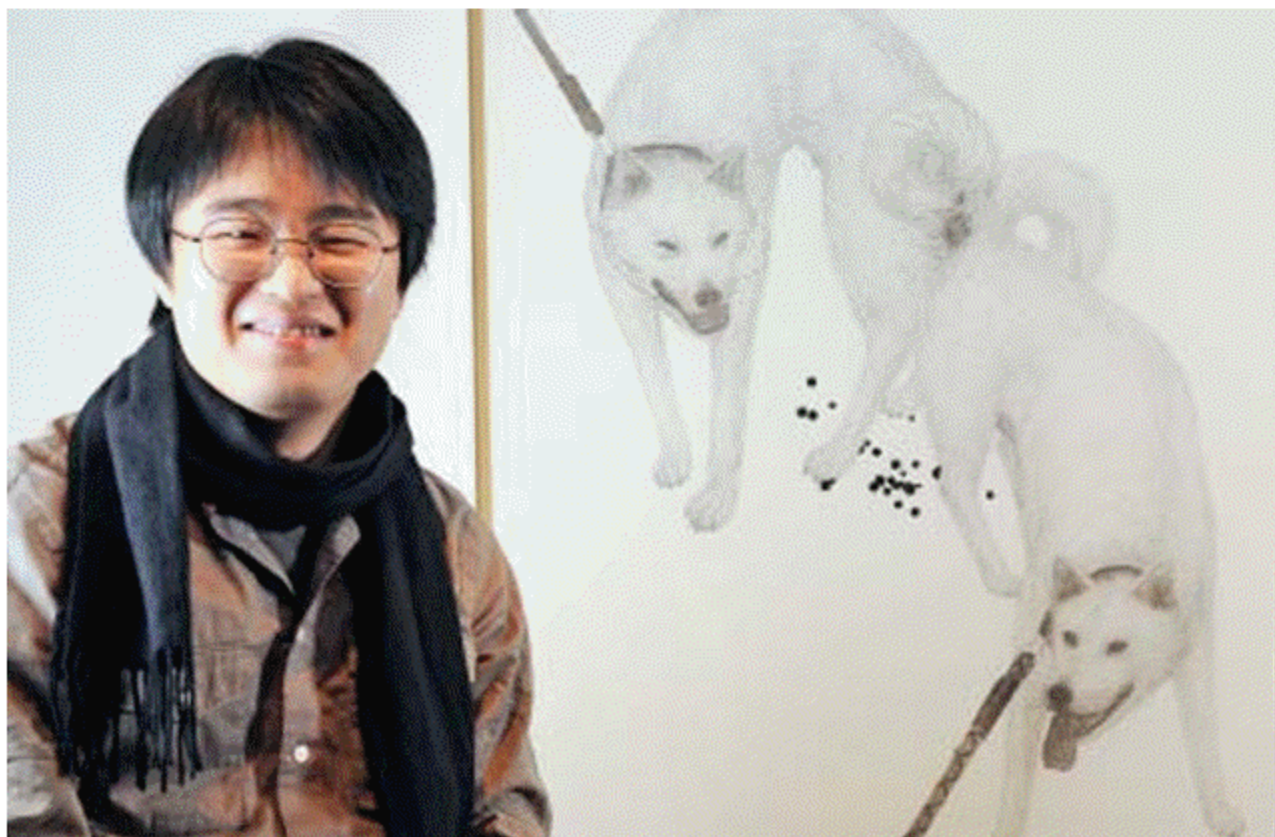
작품 '밤의 질감' (2010-2011)은 작가의 부암동 집 근처 인왕산의 밤 풍경을 그렸다. 가로 2m98cm, 세로 1m44cm의 종이에 검은색 아크릴 물감을 겹겹이 칠하고, 어둠 사이로 희끗희끗 드러난 바위들을 군데군

데 표현했다.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크고 숭고한 어둠을 내 노동력과 바꿔 물질화시키고 싶었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시인으로 치자면 윤동주, 혹은 작가가 좋아한다는 이성복을 연상시키는 작품의 서정성은 집안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시인 문혜진이 누나, 시인 문태준이 오촌 아저씨다. 형도 고향 김천에서 옷칠 공예를 한다. "예술가 집안 아니냐" 했더니 정작 본인은 "평범하다. 아버지는 포도농장을 하신다"며 덤덤했다.

문성식은 이번 전시회에서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화풍을 선보였다. 여백이 많았던 예전 화법을 버리고 화면 전체를 꽉 채웠다. 그는 "캔버스를 버리고 장지를 사용하면서 터치를 흡수시켜 서로 얽히도록 하는 즐거움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작가는 "그동안 성장통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베니스 비엔날레 이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시선들에 무심한 채 제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연처럼 그림이 제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편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리는 거예요." 전시는 내달 7일까지. (02)735-8449 곽아람 기자



문성식은 "사회비판적인 화가 브뤼겔을 좋아하지만 나는 현실 비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좀 더 멀리서 세상을 보고 싶다"고 했다. 옆의 그림은 2003년작 '엄마와 아들'.

동영상 chosun.com